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평화·행복·자유 누리며

예전에 일본에 일휴 선사가 있었다. 임제종의 고승(高僧)으로 무애행(無碍行)의 일화를 많이 남긴 스님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일휴 선사는 어린 스님과 함께 저잣거리를 걷고 있었다. 생선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그들의 코에 스며들었다. 일휴 선사는 입맛까지 다시며 중얼거렸다. "하, 생선 굽는 냄새하며 술 거르는 냄새가 마냥 좋구나."

어린 스님은 실망스런 눈빛을 숨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됐다, 저런 위인이 어찌 불법(佛法)인들 알고 있겠는가. 속물이나 다름없는데…."

한참을 걸어 절 입구에 다다르자 어린 스님은 기어이 입을 연다. "큰스님께서는 일체를 초월해 진리와 한 몸을 이루신줄 알았는데 저자거리의 생선 굽는 냄새, 술 거르는 냄새에도 집착하시다니 실망이 큽니다."

그러자 일휴 선사는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너는 그 냄새를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왔느냐? 나는 이미 저자거리에서 버리고 왔는데."

〈중론〉의 귀경계(歸敬偈)에서 그 유명한 팔불계(八不偈)를 남기고 있다. 해탈자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不生亦不滅)/ 항상 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며(不常亦不斷)/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不一亦不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不來亦不去)'

그러나 여기에서 천지개벽하듯 한 바퀴 돌아오면 꽃은 꽃이고 산은 산이며 물은 물인 것이다. 오면 반갑고 가면 서운하며 여름에는 삼베옷이 좋고 겨울에는 솜바지가 좋은 것이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일상(日常)의 평범한 보통사람이 참사람이기 때문이다. 참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키우지 않는다. 모으고 쌓으며 명예부근에서 얼씬거리거나 방편을 앞세워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진솔하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꾸미고 드러내며 쌓아두려는 소유욕이 평화와 행복, 자유를 짓누르는 병이 됨을 잊지 말일이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존재이다. 수많은 동행자와 반려자를 만나고 헤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타는 목마름의 뼈를 녹이는 아픔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 누구도 나일 수 없다
이곳이 정토요 모든 이가 부처

이것이 도인의 삶이자 선지식의 정신세계인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머묾 없는 머묾이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리는 깨달은 자의 삶인 것이다.

혼자 있어도 부족하지 않고 열이 있어도 넘치지 않는 것이다. 비어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비어있기 때문이다.

명예나 재색(財色)으로 윤회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오면 오는 것이요 가면 가는 것일 뿐 있고 없음에 꾸미거나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는 것이다.

비우고 버리며 나누기를 생활화할 뿐 변두리와 모서리를 키우지 않는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만나는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더러는 흔들리고 헐떡이나 머묾이 없어 자취가 없다. 목마르면 물마시고 졸리우면 잠을 자는 평범한 보통사람으로 열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가르주나(용수)는 그의 저서인 나는 나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일뿐, 그 누구도 나일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뿐이 아닌 그 어떤 물질도, 명예도, 사랑도 잠시 스치는 소유일 뿐 흔들리며 흩어지며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사람들은 종교의 신앙을 빛을 삼아 영원한 생명, 평화, 행복, 자유를 찾아 길 떠남의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봄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뜰에 핀 매화가지에서 봄을 찾듯 평화와, 행복, 자유는 열린 마음에서 자라는 또 하나의 생명인 것이다. 진리는 숨어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만나는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평화와 행복, 자유누리며 살 일이다.

발가락 아픈 통증 느껴 道 깨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현사사비(玄沙師備:835~908) 선사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스님으로 어부로 생활하다 나이 30이 되어 출가를 하였다. 속성이 사(謝)씨로 사삼랑(謝三郞)이라 불리기도 했다. 사씨의 셋째 아들이란 뜻이다. 동정호 호숫가에 사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주로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였다 한다. 복주(福州) 민현(縣) 출신으로 부용산(芙蓉山) 영훈(靈訓) 문하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타행(頭陀行)을 닦으며 종일 좌선을 하고 지냈다. 능엄경(楞嚴經)을 보다 심지를 밝혔다 하고 후에 설봉의존(雪峰義存)을 만나 그의 법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현사산에 들어가 30여 년을 교화활동을 하여 8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학인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 지도를 받았으며 복주의 최고 관리 왕심지(王審知)가 선사를 스승으로 모셔 성심껏 섬겼는데 자의(紫衣)와 함께 종일대사(宗一大師)라는 호를 올려 존경을 표하였다.

사비는 한 때 오미선(五味禪)을 닦으며 제방을 순력한 적이 있었다. 오미선이란 일미선(一味禪)과 상대되는 말로 방편의 맛이 석여 있는 여래선을 비판하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한 규봉종밀(圭峰宗密:780~841)은 〈도서(都序)〉에서 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외도선(外道禪),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최상승선(最上乘禪)을 말하고 최상승선이 달마 문하에서 대대로 전승되어온 선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 구분은 조사선의 안목으로 전하는 일미선(一味禪)의 경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선문염송설화〉 256칙에 오미선 이야기가 나온다. 젊은 스님이 귀종(歸宗) 선사 회상에 있다 하직을 고하고 떠나려 할 때 선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젊은 스님이 대답했다. "여러 곳으로 오미선(五味禪)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선사가 말했다. 제방에는 "오미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여기에는 단지 일미선(一味禪) 뿐이라네."

〈종용록(從容錄)〉 81칙에는 현사의 오도기연(悟道機緣)이 간략이 소개되어 있다. 현사가 산 고개를 넘다가 발로 돌부리를 차 발가락을 다치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아얏! 하고 아픔을 느끼는 순간 홀연히 깨달았다. "이 몸이 있지 않거늘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이 몸과 아픔은 궁극적으로 생긴 곳이 없다. 이제 다 그만 두고 그만 두자. 달마가 동토로 오지 않았고 이조(二祖) 혜가도 서천으로 가지 않았다.(是身非有 痛自何來 是身是苦 畢竟無生 休休 達磨不來東土 二祖不往西天)"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돌아와 능엄경을 읽다가 심지(心地)를 통달했다.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응하면서도 경전의 교설과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현사축지(玄沙蹴地)'라는 말이 고봉원묘(高峰原妙:1238~1295)의 〈선요(禪要)〉에도 나오며 이를 현사의 오도기연으로 본다.

현사의 문하에 갓 들어온 초심자 한 사람이 현사에게 물었다.

"저는 이제 선을 시작하는 초심자입니다. 선문(禪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현사가 물었다.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가?" "예, 들립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 가게나."

어느 날 현사가 대중들에게 말했다.

"수행자의 본분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있다. 다음 세 종류의 불구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교화하겠는가? 장님은 주장자를 세워 보인들 보일 리가 없고 귀머거리에게는 입이 아프도록 말을 해줘도 들을 수가 없으며, 벙어리에게는 말을 시켜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교화해야 되겠는가?"

이때 한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운문문언(雲門文偃:864~949)을 찾아가 이 말을 전하고 물었다.

"장님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교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문언이 절을 하고 일어나는 스님을 주장자로 때리려 하였다. 그러자 물은 스님이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장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가까이 오라 하였다.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오자 "귀머거리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물었다. "어떤가? 알겠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 벙어리도 아니네." 이 말을 들은 스님이 귀가 번쩍하고 눈이 열렸다.

중생 구제, 보살에게 큰 즐거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㉓ 생을 받는 것이란

菩薩思惟。受生者有二種樂。一者救眾生樂。二者解脫樂。我云何捨二種樂取一種樂。菩薩思惟。一切凡夫盡共有一切種智性。一切種智凡夫易得° 以是故我愛凡夫不愛解脫。菩薩思惟。隨有苦?生處悲心得生悲得增長。以是故。我愛有中。菩薩語悲心言。汝使我得ßq淨增長。使一切眾生盡得ßq淨盡得增長。菩薩語悲心言。眾生在苦厶百千眾苦之所逼迫。今日使眾生必得安樂與我成辦此事。菩薩語悲心言。眾生厶愛所縛厶死所攝。見世間無歸無依厶救眾生故受種種苦。菩薩思惟。我愛大丈夫。見有眾生墮在苦中捨涅槃樂。厶安樂眾生自勉勵此事。菩薩思惟。向救眾生得無生忍決定智得授記別。得授記別者我今供養恭敬。菩薩思惟。佛得遍淨眼。使我現前合掌請佛。願授我記。

번역 | 보살은 생각하기를, "생을 받는 것에 두 가지 즐거움이 있나니, 첫째 중생을 구제하는 즐거움이요, 둘째 해탈의 즐거움이라. 내가 어찌 두 가지 즐거움을 버리고 한 가지 즐거움만 취하랴"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일체 범부는 모두 일체 종류의 지혜 성품이 있어 일체종지를 범부가 쉽게 얻나니, 이로써 내가 범부를 사랑할지언정 해탈을 사랑하진 않으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 자비심으로 생을 받고 자비심을 증장시키리니 이렇게 내가 중생을 사랑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그대가 나로 청정함을 증장시키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을 얻게 하며 다 증장시키누나"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중생이 고통 받되 백천의 중생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데, 오늘날 중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락을 얻게 하며, 나와 더불어 이 일을 분별케 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중생은 애욕에 얽매인바요 죽음에 끄달린 바라. 세상을 보건대 귀의할 데가 없거늘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은 가지가지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대장부를 사랑하노라. 중생이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 열반락을 버림이라. 중생의 안락을 위하여 스스로 이 일을 권면하노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중생을 구제하려 무생법인을 얻되 결정코 지혜로 수기의 기별을 얻으리라. 수기의 기별을 얻은 이를 내가 지금 공양하고 공경하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두루 깨끗한 눈을 얻으셨으니 나로 하여금 현전하시는 부처님을 청하여 합장하게 하시고 나에게 수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해설 | 중생에게 생을 받는 다는 것은 괴로움일 것이다. 그러나 보살에게도 괴로움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중생의 생은 '애별리고'와 '원증회고'와 '구부득고'와 '오음성고'인 사고(四苦)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보살은 태어난다는 것에서 괴로움 보다는 '중생을 구제하는 즐거움'과 '해탈의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말한다. 네 가지 괴로움인 사고(四苦)인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 '미운 이와 다시 만나는 괴로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색,수,상,행,식에서 생기는 몸과 마음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러니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과 염려도 따라붙을 겨를이 없다.

그리하여 보살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가지는 발원의 힘으로 산다. 발원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스스로 열반락에 들려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 무생법인의 원력을 세운다. 보살에게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발원이다. 다시 태어나야만 중생을 구제하는 즐거움을 맛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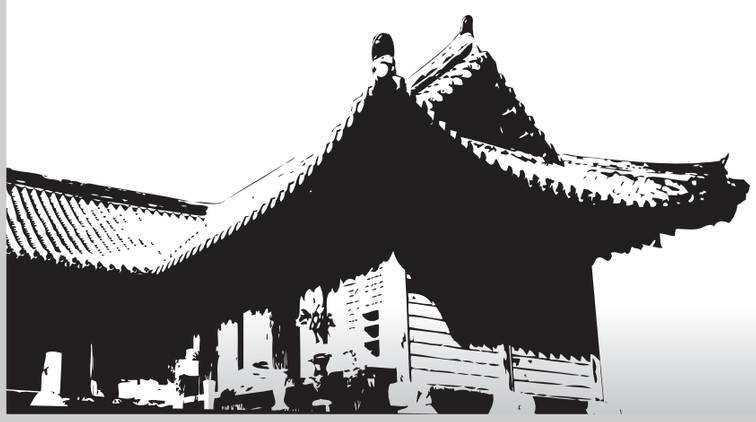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